

# 비닐하우스 파손·재배 딸기도 보상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담양 농가 혜택

내달부터는 순천 시설오이까지도 확대 적용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도 재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6일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를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이후부터는 시설오이 재배 농기가 많은 순천 지역 등지에 도농작물 재해보험에 확대된다.

이번에 비닐하우스에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은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재해보험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물이 포함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가능 지역은 담양, 충남 논산, 경남 밀양·진주이며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오는 10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단독형 비닐하우스로, 하우스 1단지 면적 합계가 1500m<sup>2</sup> 이상이다. 단독형 비닐하우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m<sup>2</sup>이상이면 시설딸기 보험도 들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단독형 하우스는 1년 이 원칙이지만 1년 중 일부만 설치하는 이동식 하우스는 종자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하며 시설딸기는 정식 (모종을 밟아 심는 일) 때부터 수확 적용된다.

보상하는 손해는 단독형 하우스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하여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한다. 시설딸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 보상해준다.

재해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든 농가가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손해평가반이 구성돼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조사가 실시되며 손해액 평가 이후 보험금을 산정, 지급한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순천·충남 공주·강원 춘천의 시설오이와 부산 강서·경남 김해·강원 춘천의 시설토마토, 그리고 경북 성주의 시설참외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확대 적용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토종벌 바이러스성 질병 농가 확산

곡성·구례·담양 등지 꿀 수확량 70~90% 급감

원인 못찾아 보상대책 막막... 농민 반발 움직임

토종벌 바이러스성 질병이 전남 도내 주요 토종벌 생산 지역을 훑으면서 꿀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직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한데다 보상에 난색을 보이면서 농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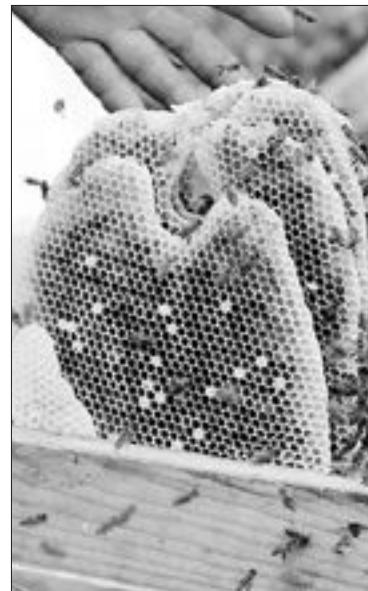
16일 전남도와 한국토봉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도에서 시작된 토종벌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종봉아부페병’이 최근 곡성과 구례, 담양 등 전남지역에 확산돼 지역 토종벌 농가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전남도가 지난달 1~15일 토종벌 피해 사례가 접수된 17개 시군 1736 농가를 조사한 결과 총 10만 군 중 56%인 5만 6000 군에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처음 나타나 농가를 긴장시킨 ‘낭종봉아부페병’은 올해는 충남·북과 경남, 전북을 거쳐 전남까지 날아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추세이다.

낭종봉아부페병이 찾아온 피해 농가에서는 꿀 수확량이 평년과 비교해 70~90%까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병한 유종들은 몸에 물집이 생긴



듯 애기 꽈 치고 피부가 굳어지기 시작하며 몸은 백색에서 점차 회황색으로, 나중에는 암갈색으로 변한 뒤 점차 말라 죽는다. 감염 2일부터 병증이 나타나는데 이 병에 걸린 유종들은 허물을 벗지 못하고 번데기 전 단계에서 고사한다. (사진)

하지만 현재까지 발병 및 전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예방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지민기자 dok2000@

▲ 낭종봉아부페병=꿀벌 애벌레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성 질병. 발생 초기의 모습이 물집이 생긴 모습과 비슷해 낭종병으로 부르며 서양에서 들여온 암봉보다는 우리 토종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종벌 농가들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이 병을 제대로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가축전염병이나 병충해가 아니므로 경영안정자금, 시설 현대화 지원 외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축산업으로 분류된 꿀벌 농가는 제해나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 토종벌 농가 대표들은 지난 12일 남원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낭종봉아부페병에 관한 재해 인정 비상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특별 재해 인정과 함께 농가 보상, 법정 전염병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역별 결기대회와 상경 투쟁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상이 어렵다면 군당 10만 원 상당의 꿀벌 입식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



나주시 금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예절교실 큰 호응

나주시 금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이번 청소년 예절교실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국민윤리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둔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나주 관내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청소년 예절교실은 전직 교사로 정년 퇴임한 박재운(63·금천면)씨가 강사로 나서 총회특강을 비롯해 나주의 역사·한자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예절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장 소중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나라사랑과 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상이 어렵다면 군당 10만 원 상당의 꿀벌 입식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

###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 이상 책임보장  
1억 직접투자 시  
년 1000만 원 이상 소득 가능

경·공매 컨설팅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업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신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 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T. 062) 226-3377  
FAX. 226-3399  
(광주, 남구 관제실화관 건너 풀마루 상가내)

###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m<sup>2</sup>  
(180평 분할 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 원

■ 공동 복합 APT 주택 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 가능

■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삼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삼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향지구

※ 10층 신축 건물로 코너

T. 081-5688 H. 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려겠습니다.

☎ FAX. 223-1772 훈 011-802-2532  
(광주광역시 신본동 대로동 소방서내변)

###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 이상  
입주률 80%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m<sup>2</sup> (구, 33평) 로얄층 / 164m<sup>2</sup> (구, 49평) 로얄층  
191m<sup>2</sup> (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m<sup>2</sup> (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 할인금액 6천 만

■ 주변 소프티파크 / 고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자 심승 기대 최근 대림 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  
의 친사를 받고 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탑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여수 진세 민속놀이 재현

16일 칠월 칠석을 맞아 여수시 소라면 관거리 상관마을 주민들이 진세(만 3~5세)를 맞은 어린이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덕담을 하고 있다. 이날 진세민속보존회(회장 김영운)는 상관 행복마을 준공을 기념해 ‘진세 민속놀이’를 재현했다.

(여수시 제공)

나주 금천면 주민자치위  
청소년 예절교실 큰 호응

### 3麗 통합후 중단... 재활용 방안 마련 시급

여수시 청사 구내에 공사가 종단된 문예회관이 10여년째 방치되고 있어 부지이용이나 재활용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여수시와 시민들이 따르면 여수시 청사 구내에 지난 1998년 신축 공사 도중 중단된 부지면적 1만6480m<sup>2</sup> 규모의 문예회관 건물이 기초공사만 마친 복성사나운 흥물로 12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1992년 여천시가 220억원을 들여 여천시 문예회관 용도로 신축하다 나중에 여수시·여천군 등과

함께 ‘3리(麗)’가 통합돼 지난 1998년 통합 여수시로 출범하면서 기존 여수시 문예회관의 중복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설계돼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 일부만 공사를 마치고 중단됐는데 현재 지하 2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공간 1만6000여 m<sup>2</sup>의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전혀 없고, 특히 관공문화수 산국이나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들

은 대책 마련은 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시민들은 “시청을 떠미다 주차장이 비좁아 분통이 터지는데 수백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땅을 10년 넘도록 놀리고 있으니 아이없다”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전의 아주 오래된 일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소홀히 했던 일이다”며 “재활용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곡성 죽곡 전원마을 조성

109세대 내달 착공... 85% 분양

곡성군이 지역